

# 북한에서의 '단일적 지도력'의 확립과 당·국가 건설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치학)

## I. 머리말

북한의 당·국가 건설과정은 한마디로 김일성(金日成) 그룹이 경쟁그룹 내지 경쟁파벌들을 제거하거나 중립화시켜 '단일적 지도력'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적 지도력을 수립하려는 집념은 당·국가 건설자들에게는 정치적 본능이며, 단일성의 획득과정은 불가피하게 당·국가 건설 경쟁자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거나 무력화(無力化)시켜 가는 과정을 수반한다.<sup>1)</sup> 이는 지금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성립되었던 근대국가

---

1) Charles Tilly,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 Organized Crime", i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meyer, &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181; Charles Tilly,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pp.71~75; Hak Soon Paik,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A Ph. D. Dissertation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pp.25~26; 백학순, "국가형성전쟁으로서의 한

형성기에도 그러하였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후반의 미합중국의 형성이나, 20세기 전반기에 구 소련의 형성에서도 그러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국가의 건설에서도 그러하였다.

김일성<sup>2)</sup>은 공산당 건설을 위해 여러 파벌의 공산주의자들과, 국가(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자들과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투쟁해야만 하였다. 북한의 당·국가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은 해방 직후부터 1946년 2월까지의 첫 6개월간이었다. 이 시기에 소련은 소련점령군 당국을 통하여 북한의 당·국가 건설의 전 과정을 감독하였고, 김일성 그룹의 후견자였다.<sup>3)</sup> 이러한 소련의 후견 하에, 김일성 그룹은 한편으로는 국내파인 오기섭(吳淇燮) 그룹과 박헌영(朴憲永) 그룹을 차례로 무력화시켜 당에서의 ‘단일적 지도’를 확립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만식(曹晩植) 그룹을 제거하고 국가(정부)기구를 수립하였다.<sup>4)</sup>

김일성, 오기섭, 박헌영, 그리고 조만식은 당과 국가 건설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목표 달성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당과 국가 건설에 쓰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자원과 능력을 자신들이 처한 ‘정치기회구조’<sup>5)</sup> 하에서 최대껏 이용하여, 당과 국가 건설을 위한 자

국전쟁”(성남: 세종연구소, 1999), 8쪽.

- 2) 본 논문에서는 ‘김일성’, ‘오기섭’, ‘박헌영’, ‘조만식’ 등의 개인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도자 개인보다는 그들이 지도자로 있는 그룹을 각각 지칭한다.
- 3) 북한의 국가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소련의 감독과 김일성 그룹의 자율성에 관한 문제는 백학순, “북한의 국가형성에 있어서 김일성의 자율성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2호(1994), 385~403쪽 참조.
- 4) 북한의 ‘당·국가 건설’ 연구의 기반을 놓는데 공헌한 대표적인 기존 연구 업적은 다음과 같다. Robert A. Scalapino &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313~388; Chong-Sik Lee, *Korean Workers' Party: A Short Histor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pp.73~85;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p.294~329;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59~105.

신의 '전략'을 구사하며 상호경쟁하였다. 이들 사이의 상호경쟁 과정이 바로 북한의 당과 국가 건설 과정 그 자체이며, 이러한 상호경쟁의 결과가 김일성에 의한 북한의 당·국가의 건설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1945~50년 기간에 김일성 그룹이 '공산당' 틀 내에서 소련파 및 연안파와 연합하여 오기섭 그룹과 박헌영 그룹을 차례로 무력화시키고 제거해 나가는 과정과 '국가(정부)'의 틀 내에서 민족주의자 조만식 그룹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에서의 당·국가 건설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II. 김일성 대 오기섭

1945년 10월 13일에 개최되었던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이하에서는 '서북5도당대회'로 약칭)에서 만주 빨치산파와 국내파의 정치노선이 김일성과 오기섭에 의해 각각 제시되었다.<sup>6)</sup> 당시 북한의 정치세력들간에 최대의 정치현안 중의 하나는 통일전선형성 문제였다. 그런데 이는 정치 지도자들 자신의 정치노선뿐만 아니라 소련점령군 당국의 대북한정책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문제여서, 사실상 통일전선 노선 문제는 소련군 점령이라는 환경구조 하에서 북한 지도자들의 운명을 가름하는 매

---

5) '정치기회구조라 함은 '어떤 그룹이 정치적 요구를 주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그 그룹의 정치적 환경에서의 힘의 배열'을 의미한다. Charles D. Brockett, "The 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ies and Peasant Mobilization in Central America", *Comparative Politics*, vol.23, no.3(April 1991), p.254.

6) 『正路』, 1945년 11월 1일 (창간호); 조선산업노동조합소 『올은 노선』 (서울: 1945년 11월 24일) (東京: 민중신문사 출판부, 1946년 6월 20일)(轉刊), 32~48쪽.

우 중요한 문제였다.

김일성은 '민족통일전선'을, 오기섭은 '인민전선'을 제시하였다. 민족주의적 지주와 자본가를 포함시킨 김일성의 '민족통일전선'은 오기섭의 '인민전선'보다 더 포괄적이었다. 즉 김일성은 민족통일전선에 자본가를 포함시켰다.<sup>7)</sup> 김일성은 만주 항일빨치산 시절에 거대한 일본제국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자들을 포함한 모든 항일세력을 총결집하는 '민족통일전선'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고, 또 당시 소련 점령군 당국의 북한에서의 통일전선 노선이 민족통일전선이었기 때문에, 그는 공산주의 세력이 극히 미미하고 민족주의 자본가와 지주들의 힘이 컸던 해방 직후의 북한 상황에서 민족통일전선이 정치적으로 현명하고 정당한 노선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오기섭은 인민전선에 자본가와 지주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민족통일전선이라는 명분 하에 친일파와 반동분자들을 끌어안는 것을 반대하였다.<sup>8)</sup> 오기섭은 일제통치 하에서의 지주와 자본가는 그 성격상 친일한 계층으로 간주하였고, 따라서 모든 자본가와 지주를 가능하면 통일전선에서 제외시키는 인민전선을 지지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그가 최초로 한 공식연설인 "민족 대동단결에 대하여"에서 민족통일전선과 인민전선을 구별하고 있다. 김일성의 구분에 의하면, 민족통일전선과 인민전선 양자가 '파쇼를 타도'한다는 목적에서는 동일하지만, 당시의 조선 상황을 "외부의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화의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민족통일전선을 주장할 것이요, 반대로 조선이 외부 제국주의 세력보다는 "내부의 파쇼세력에 의해 더 큰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인민전선을 주장할 터이었다.<sup>9)</sup>

7) 위의 책, 40~45쪽.

8) 위의 책, 36~38쪽.

9) 김일성장군 술, "민족대동단결에 대하여"(1945년 10월), 1~2쪽; Georgi Dimitroff, *The United Front: The Struggle Against Fascism and War* (San Francisco: Proletarian Publishers,

그러나 서북5도당대회는 김일성에게는 중요한 당대회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선 이 당대회에서 김일성과 오기섭의 역할은 의미심장한 차이가 있다.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설립, 당규약 기초, 당증 발행, 전(全)조선 당대회 소집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회의에 내놓은 사람은 오기섭이 아니라 바로 김일성이었다.<sup>16)</sup> 당시 남한과 북한 어느 곳에도 조선공산당의 제대로 확립된 공식 당규약, 당증과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 김일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앞으로의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17)</sup>

1945년 11월 15일에 있었던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일성의 ‘민족통일전선’ 노선이 마침내 오기섭의 ‘인민전선’ 노선에 대해 승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sup>18)</sup> 김일성은 1945년 12월 17~18일에 열렸던 북부조선분국의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회의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오기섭을 꺾고 당권을 장악하였다. 이 회의는 북한의 당건설 역사에서 ‘당의 가면’을 쓰고 있던 ‘친일파’, ‘비무산계급적 비공산주의 분자’와 ‘파벌사상의 소유자들’을 숙청하고 ‘중앙집권제를 확립’하여 공산당을 ‘사상통일의 유일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그야말로 당사업에 있어서 ‘신기축(新機軸)’을 이룩한 중요 회의였다.<sup>19)</sup>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을 선출하고 부서를 개편하였는데, 김일성, 김용범, 무정, 오기섭 등 19명이 집행위원에 선출되었고, 김일성은 북

15) 기광서, “1940년대 전반 소련군 88독립보병여단 내 김일성 그룹의 동향”, 『역사와 현실』, 제28호(1998년 6월), 280~285쪽.

16) 조선산업노동조사소, 『붉은 노선』, 44쪽.

17) 박현영과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45년 11월 5일 현재에도 아직 명확한 행동강령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소련군점령 당국은 보고하고 있다.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9집(1995), 23쪽, 각주 88번 참조

18)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72쪽;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의 날짜에 대해서는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402쪽 참조

19) 『正路』, 1945년 12월 21일.

지주와 자본가를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민족통일전선을 추구한 이유는 물론 그들의 국내 기반이 허약하고, 그들이 이제 새롭게 권력 기반을 넓혀야 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해외파는 명백하고도 지나친 친일 행위를 한 자본가와 지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본가와 지주를 포함하는 폭 넓은 연합세력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해외파 공산주의자들이 포괄적인 민족통일정책을 지지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은 국제정치의 복잡한 동학(動學)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파보다 훨씬 더 넓은 시각으로 보다 민감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북한에서의 소련점령군 당국의 정책은 처음부터 '민족통일전선'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자신들도 민족통일전선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서북5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치노선 확립 조직 확대강화에 관한 결정서”를 분석해 보면,<sup>13)</sup> 많은 주체에 있어서 국내파와 해외파 사이에 그런 대로 타협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파는 당의 정치노선으로서 인민전선을 밀어붙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대회 결정서 어느 곳에도 김일성의 민족통일전선이 오기섭의 인민전선 주장 만큼 뚜렷이 드러나 있는 곳은 없다. 국내파의 힘은 결정서의 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과시되었다.<sup>14)</sup>

이러한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서북5도당대회는 김일성이 귀국한지 미처 1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개최되었고, 김일성 그룹은 국내파 공산주의자의 숫자에 비해 문자 그대로 소수의 빨치산 전사들의 그룹에 불과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소련군 88독립보병여단 내의 조선인은 항일연군출신 88명과 소련계 한인 15명 등 모두 103명에 불과하였다.<sup>15)</sup>

13) 조선산업노동조사소, 『붉은 노선』, 49~54쪽.

14)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1992), 123쪽.

김일성은 비록 국제적으로는 미·소 연합국이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패배시켰으나, 당시 조선의 상황이 친일파, 민족반역자, 남한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과 연합한 자 등의 '외부'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이들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지주 및 자본가들까지 포함한 전 민족이 대동단결하는 민족통일전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sup>10)</sup>

한편, 오기섭의 노선이 전체적으로 '인민전선'이기는 하였지만, 그의 노선이 김일성이 "민족대동단결에 대하여"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엄격한 의미의 '인민전선'이었던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오기섭이 외부 제국주의 세력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였으므로 당시 조선의 상황을 외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협 당하고 있다기보다는 '내부' 파시스트 세력에 의해서만 위협받는 상황으로 인식하였는지는 현재 필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 만으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다.<sup>11)</sup>

남한의 박헌영도 통일전선에 자본가와 지주를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sup>12)</sup> 당시 조선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해외파 공산주의자들이

1975), pp.35~41, 45~47, 68~69, 197~216.

10) 『正路』, 1945년 11월 14일.

11) 오기섭의 1946년 1월 2일 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의 초청 강연 '3국외상회의의 조선문제 결정과 조선공산당의 태도'와 1월 6일 모스크바 3상회담 결정을 지지하는 '10여만의 대중 가두시위의 다음날인 1월 7일 평양인민극장에서의 '모스크바회의의 결정 지지시위의 의의와 교훈'을 보면, 오기섭은 친일파와 일제잔재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은 외래의 힘과 결탁하려 하는 새로운 파쇼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인민전선'이 아닌 '민족통일전선'의 주장에 더 가깝다. 『正路』, 1946년 1월 17일 및 24일. 그러나 오기섭의 통일전선 노선과 관련하여 위 연설의 내용을 끝이론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945년 11월 15일과 12월 17~18일에 열린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제2차 및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오기섭의 인민전선 노선이 김일성의 민족통일전선 노선에 의해 패배하였고, 위 연설은 그러한 일이 있는 후의 일이었으므로, 오기섭으로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인민전선'에서 '민족통일전선'으로 입장을 바꾸어 이야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 김준엽 외 편, 『북한'연구 자료집』, 제1권 (서울: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9), 6, 7, 16쪽.

부조선분국의 책임자(책임 비서)가 되었다.<sup>20)</sup> 동시에 북한에서의 당·국가 건설을 돕기 위해 북한에 들어온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북부조선분국 조직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sup>21)</sup>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 국내파에 대한 비판과 관련되어 토의된 내용은<sup>22)</sup>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당시 노동자의 공산당에의 입당은 1년 이상 당이력을 가진 보증인이 있어야 가능하였는데, 김일성은 당이력이 1년 이하인 보증인이라도 2명 이상이 보증을 하면 입당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데 성공하였다.<sup>23)</sup>

둘째, 김일성은 공산청년동맹(이하 ‘공청’으로 약칭)의 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으로 약칭)에로의 재조직에 대한 함남도당과 오기섭의 반대를 비난하였다.<sup>24)</sup> 김일성이 민청을 조직하려던 것은 청년들 사이에서 민족통일 전선을 형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sup>25)</sup>

셋째의 문제는 북한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 오기섭은 직업동맹(이하 ‘직맹’으로 약칭·노동조합)은 당의 지지단체나 국가에 종속되는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독립적인 조직이므로, 직맹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오기섭은 직맹은 당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직맹에 대한 당의 지도는 거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었

20) 『正路』, 1945년 12월 21일. 오기섭은 집행위원 19명중에서 4번째로 선출되었다.

21)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74, 181쪽.

22) 태성수 편, 『당문헌집: 당의 정치노선 급 당사업 총결과 결정』, 제1권 (평양: 정로사 출판부, 1946), 3~4쪽.

23) 위의 책, 16쪽. 당시 1년 이상의 당원 생활 이력을 가진 보증인들은 현실적으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입당 규약은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당권을 유지 하는데 결정적인 안전조항이었음에 틀림없다. 해외파 공산주의자들은 숫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돌아온 지 이제 겨우 4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正路』, 1945년 11월 14일.

24)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1948), 55~56, 166쪽.

25) 한재덕, 『김일성장군 개선기』 (평양: 민주조선사, 1948), 114~119쪽.



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당의 우월성에 대한 지극히 중대한 도전이었다.<sup>26)</sup>

그런데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가 열리기 약 한달 전에 『正路』에 실린 “레닌의 공산당 조직원리 개요”라는 해설기사에서, 오기섭은 “당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당원들도 있다”고 하면서, “당은 ‘노동계급의 한 부분이며 한 부대’이기는 하지만 당은 ‘보통 부대’가 아니라 ‘노동계급과 노력대중의 지도단체’이며 ‘노동계급의 전위 조직이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군중조직’이다. 또 당은 노동계급의 모든 단체 중에 최고단체이며 노동계급의 모든 단체를 지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7)</sup> 이 해설기사는 오기섭이 노동조합과 당이 대등한 위상을 갖는다고 주장했다는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이로써 공간물(公刊物)에 나타난 오기섭의 주장과 실제 정치에서의 오기섭의 생각과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대단한 기회주의적 처세주의자였는지는 몰라도, 이는 오히려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외국군 점령 하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이중적 언술과 이중적 행위를 하며 활동해야 했던 당시의 구조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의 오기섭의 직맹관에 대한 비판은 준엄하였다.

김일성은 평양의 사동에 있는 한 생산기업소를 예로 들면서, 당조직이 직맹을 잘 지도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직맹들은 노동자들을 혼란시키고 ‘북조선행정국’(5도행정국) 일을 돕지는 않고 5도행정국의 일을 오히려 파탄시킨다고 비난하였다. 김일성은 공산당은 노동계급의 당이며 당은 직맹과 다른 조직들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비록 오기섭의

26)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11쪽.

27) 『正路』, 1945년 11월 14일.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우리 중에는 아직도 직업동맹 지도는 공산당의 사업이 아니며 직업동맹은 당지도 하에서 사업할 것이 아니라고 논증하는 자들이 있다”고 오기섭을 공격하였다.<sup>28)</sup> 앞으로 보겠지만, 직맹문제는 주요 당회이나 당대회마다 김일성과 그 추종자들이 들추어내어 오기섭을 공격하는 구실로 이용하게 된다. 직맹문제는 오기섭을 끝까지 구렁텅이로 몰고 간 필생의 악재로 작용하였다.

이제 1945년 12월 중순에 북한의 공산당 조직에서 권력의 추는 김일성 그룹에게로 넘어 갔다.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서의 한 조항을 보면, 확대집행위원회는 “당의 유일과 엄격한 규율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당적 처벌을 주며 또는 당대열에서 출당시킬 것까지 강요한다”고 되어 있다.<sup>29)</sup> 이는 ‘사상통일의 유일당’의 책임비서로서 김일성이 자신의 반대자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종파주의적인 행위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지극히 엄중한 경고였다. 이 모든 것이 김일성이 귀국한 지 3개월도 채 안된 기간 안에 소련점령군의 후견 하에 일어난 일이었다.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가 끝난 3일 후에 열린 ‘조선공산당 평양시당 제1차 대표대회’에서<sup>30)</sup> 오기섭은 며칠 전의 북부조선분국의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가 ‘위대한 결정’을 하였다고 강조하고 ‘자아비판’의 정신으로 당내에 잠입해 있는 이색분자와 가(假)공산주의자의 숙청을 강조하였다. 위에서 보았듯이, 오기섭은 북부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심한 비판을

28) 태성수 편, 『당문헌집: 당의 정치노선 급 당사업 총결과 결정』, 제1권, 5~6쪽. 북부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가 끝난 후 얼마 안되어 『正路』는 “노동정신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고 있는데,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엄정한 ‘자아비판’ 하에 노동자들의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사설은 “과업이나 태업은 노동운동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노동자 농민이 직접 주권에 참가하여 인민주권을 수립하기 위한 건설적 생산인 해방된 조선의 생산목적은 해방 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正路』, 1945년 12월 26일.

29) 태성수 편, 『당문헌집: 당의 정치노선 급 당사업 총결과 결정』, 제1권, 15쪽.

30) 『正路』, 1945년 12월 21일 및 26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존을 위해 공식석상에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발언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1)</sup>

오기섭은 북부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큰 타격을 받았지만, 1946년 2월 초순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될 때까지는 그의 힘이 당장 꺾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오기섭은 1945년 12월 25~27일에 개최된 '평남도당 제1차 대표대회'와 당기관지 『正路』에 주요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다.<sup>32)</sup>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이후 『正路』에 실린 오기섭의 글이나 기사를 살펴보면,<sup>33)</sup> 그 숫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오기섭은 뛰어난 '당 이론가', '정치 이론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련에 정통한 '소련통'이었음에 틀림없다. 선전선동 수단으로서의 『正路』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sup>34)</sup> 만주 항일빨치산과의 글은 거의 없고,<sup>35)</sup> 오기섭, 최용달(崔容達)<sup>36)</sup> 등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집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파의 힘이 살아 있었고, 당이론가들이 국내파에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증거로 보인다.<sup>37)</sup>

오기섭은 1948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면서 북부조

---

31) 『正路』, 1945년 12월 26일.

32) 『正路』, 1946년 1월 1일 및 8일.

33) 『正路』, 1945년 11월 14일, 21일; 12월 5일, 14일, 26일; 1946년 1월 1일, 9일, 10일, 11일, 12일, 16일, 17일, 18일, 21일, 23일, 24일, 25일, 26일, 29일, 30일, 31일; 2월 5일, 3월 13일.

34) 『正路』 자체가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싣고 있는데, 『正路』 창간사를 보면 "당기관지는 군중의 조직자이며 선전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35) 빨치산으로서의 립춘추의 글과 최용건의 글이 유일하게 『正路』 1946년 1월 9일과 1월 10일자에 각각 실리고 있다.

36) 『正路』, 1946년 1월 11일, 17일, 18일, 23일, 24일, 25일.

37) 당이론가, 공산주의 이론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 소련파의 글은 1946년 1월 중순에서부터 실리기 시작하는데, 이는 주로 번역물로서 『正路』 창간 2개월 만 이후부터다. 『正路』, 1946년 1월 12일, 13일, 14일, 16일, 17일, 18일, 21일, 24일; 2월 7일, 8일. 1946년 3월 15일부터는 레닌, 스탈린에 대한 소개와 그들의 저술을 비롯한 소련 및 소련공산당 역사, 소련최고연방회의 등에 관한 글의 번역 및 소개가 압도적으로 『正路』의 지면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있다.

선분국 비서직과 함남도당 위원장직에서 물러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선전부장으로서 좌천되었는데, 이렇게 오기섭의 힘이 크게 꺾였다는 것을 『正路』에 실리는 오기섭의 글이 2월 중순부터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sup>38)</sup> 1946년 3월 1일 이후에는, 오기섭의 글은 8개월만인 1946년 10월 하순과 1947년 1월에 『로동신문』에 겨우 두 편 실렸을 뿐이다.<sup>39)</sup> 이는 오기섭의 추락을 웅변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오기섭 그룹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창립된 후 1946년 2월 15일에 열린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제4차 확대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그 동안 종파주의적 행동을 하였으며, 당규약과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심한 공격을 받았다.<sup>40)</sup> 그러나 본격적인 공격을 받은 것은 1946년 8월 28~30일에 개최된 북조선로동당(이하 '북로당'으로 칭함) 창립대회에서였다.

날개 꺾인지 이미 오래된 오기섭은 이번에도 김일성 측의 여러 가지 국내정치적 필요와 계산 때문에 계속하여 '준비된 희생양'이 되었다. 오기섭은 북로당 창립대회에서 합당의 중요성과 북로당의 유일성과 견고성, 이론과 사상의 통일, 당강령과 규율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당원들이 이전의 당적에 따라 구별하는 행위는 종파주의적 경향을 부추기고 당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를 크게 반대하였다.<sup>41)</sup> 북로당 창립대회에서의 김일성에 대한 오기섭의 존경의 표시와 복종은<sup>42)</sup> 그가 처한 처지로 볼 때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의 것이긴 해도, 무엇보다도 패장(敗將)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38) 『正路』, 1946년 2월 12일, 14~21일; 3월 1일.

39) 『로동신문』, 1946년 10월 20일; 1947년 1월 2일.

40) 태성수 편, 『당문헌집: 당의 정치노선 급 당사업 총결과 결정』, 제1권, 19~24쪽;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136~137쪽.

41)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1946), 61~62쪽.

42) 위의 책, 60, 62쪽.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존을 위해 공식석상에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발언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1)</sup>

오기섭은 북부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큰 타격을 받았지만, 1946년 2월 초순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될 때까지는 그의 힘이 당장 꺾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오기섭은 1945년 12월 25~27일에 개최된 ‘평남도당 제1차 대표대회’와 당기관지 『正路』에 주요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다.<sup>32)</sup>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이후 『正路』에 실린 오기섭의 글이나 기사를 살펴보면,<sup>33)</sup> 그 숫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오기섭은 뛰어난 ‘당 이론가’, ‘정치 이론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련에 정통한 ‘소련통’이었음에 틀림없다. 선전선동 수단으로서의 『正路』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sup>34)</sup> 만주 항일빨치산과의 글은 거의 없고,<sup>35)</sup> 오기섭, 최용달(崔容達)<sup>36)</sup> 등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집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파의 힘이 살아 있었고, 당이론가들이 국내파에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증거로 보인다.<sup>37)</sup>

오기섭은 1948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면서 북부조

---

31) 『正路』, 1945년 12월 26일.

32) 『正路』, 1946년 1월 1일 및 8일.

33) 『正路』, 1945년 11월 14일, 21일; 12월 5일, 14일, 26일; 1946년 1월 1일, 9일, 10일, 11일, 12일, 16일, 17일, 18일, 21일, 23일, 24일, 25일, 26일, 29일, 30일, 31일; 2월 5일, 3월 13일.

34) 『正路』 자체가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싣고 있는데, 『正路』 창간사를 보면 “당기관지는 군중의 조직자이며 선전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35) 빨치산으로서는 립춘추의 글과 최용건의 글이 유일하게 『正路』, 1946년 1월 9일과 1월 10일자에 각각 실리고 있다.

36) 『正路』, 1946년 1월 11일, 17일, 18일, 23일, 24일, 25일.

37) 당이론가, 공산주의 이론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 소련과의 글은 1946년 1월 중순에서부터 실리기 시작하는데, 이는 주로 번역물로서 『正路』 창간 2개월 반 이후부터다. 『正路』, 1946년 1월 12일, 13일, 14일, 16일, 17일, 18일, 21일, 24일; 2월 7일, 8일. 1946년 3월 15일부터는 레닌, 스탈린에 대한 소개와 그들의 저술을 비롯한 소련 및 소련공산당 역사, 소련최고연방회의 등에 관한 글의 번역 및 소개가 압도적으로 『正路』의 지면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있다.

한다”는 것이었다.<sup>48)</sup> 서대숙은 문제의 글이 『로동신문』 9월 18일자에 실린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sup>49)</sup>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1946년 9월 1일 창간호부터 1947년 4월말까지 기간의 『로동신문』에 오기섭의 그러한 글은 보이지 않는다.<sup>50)</sup> 김창순은 당시 회의에서 휴식시간에 문제의 『로동신문』이 배부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sup>51)</sup> 그가 당시의 사건을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기섭의 글이 『로동신문』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신문이나 잡지에 실렸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sup>52)</sup>

주닝하는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들이 이미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자들은 국유화된 산업경제기관에 반대하여 투쟁할 수 없다”는 논리로써 오기섭을 매섭게 공격하였다.<sup>53)</sup> 그는 또한 오기섭은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조합이론을 북한에 적용함으로써, 사리를 잘 모르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투쟁의 대상이 국유화된 산업경제기관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고의로 선동하였다고 공격하였다.<sup>54)</sup>

---

48) 김창순, 『북한 15년사』 (서울: 지문각, 1961), 107~108쪽; 김창순, 『역사의 증인』 (서울: 한국 아세아 반공연맹, 1956), 144~151쪽.

49)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p.85; Dae-Sook Suh, *Korean Communism 1945~1980: A Reference Guide to the Political System*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1), p.283.

50) 다음에 열거하는 날짜의 『로동신문』은 필자가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 날짜의 『로동신문』에 오기섭의 직맹에 관한 글이 실렸을 가능성은 있다. 『로동신문』, 1946년 9월 7일 제2면, 9월 9일, 9월 10일 제1면, 9월 21일, 10월 23일, 11월 9일, 11월 17일, 12월 6일 제1면, 12월 12일, 1947년 1월 21일.

51) 김창순, 『역사의 증인』, 148쪽.

52) 나중에 1947년 3월 15일 북로당 중앙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김일성 자신이 오기섭의 직맹에 관한 ‘논문’에 대해 문제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기섭이 그러한 논문을 발표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3권, 185~187쪽.

53) 김창순, 『북한 15년사』, 108~109쪽. 1946년 10월 19일 개최된 ‘각도 노동부장회의’에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노동부장 오기섭은 “금후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기술을 타개하여 산업국과 협력하여 생산을 높이며 생산을 높임으로써 실업자를 없애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46년 10월 22일. 이는 김창순의 이야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54) 김창순, 『북한 15년사』, 108~109쪽.

소련도 초기에는 직맹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경험한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sup>55)</sup> 1920년 3~4월에 개최되었던 러시아공산당 제9차 당대회는 당·국가와 직맹과의 관계에 대해 준엄한 평결을 내렸다. 1920년 4월 1일자 “직맹과 그의 조직문제에 관하여”라는 결정은 “직맹과 소비에트 권력기관 사이의 어떠한 반대[이의 충돌]도 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56)</sup> 이 결정은 러시아공산당 제10차 당대회에서도 “어떠한 수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재확인되었고, “러시아공산당은 당의 중앙과 지방 조직들의 이름으로 직맹 사업의 이데올로기 전(全)측면을 무조건적으로 지도한다”고 다시 한번 선언하였다.<sup>57)</sup>

말할 것도 없이, 주녕히는 직맹과 당·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평결을 내렸던 러시아공산당의 결정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었다.<sup>58)</sup> 오기섭은 이번에도 지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소련에서 직맹에 관한 당의 노선이 이미 1920년대에 확립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직맹과 당·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오기섭의 이론은 ‘반당·반국가적’ 주장으로 공격당하고도 남을 이론이었다.

어떻게 오기섭이 직맹에 관한 소련공산당의 입장을 모를 수 있었을까? 오기섭은 소련 유학을 한 사람이었고 상대적으로 소련 공산당과 소련 정치에 대해 정통한 지도자였다. 오기섭이 소련점령군 당국 치하에서 소련에서

55) 소위 ‘전시(戰時) 공산주의 시기’(1918~21)에 산업부문에서의 행정과 직맹의 역할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열린 공방이 있었다. 소위 ‘노동자 반대당’(Workers’ Opposition)은 노동조합이 전국의 모든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공산당을 전체 노동계급의 진정한 이익의 체현으로 보았고 직맹이나 파벌주의적인 이익이 당의 최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Leonard Schapiro,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2d ed.(New York: Vintage Books, 1971), pp.201 ~ 202; Alec Nove, *An Economic History of the U. S. S. R.*, 2d ed.(London: Penguin Books, 1989), pp.62~63.

56) Richard Gregor, ed., *Resolutions and Decision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The Early Soviet Period, 1917~1929*, vol.2(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4), pp.100~105.

57) *Ibid.*, p.126, 128.

58) *Ibid.*, pp.100~105, 126~129.

의 당·국가와 직맹과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소련공산당의 입장에 반하는 주장을 전개하였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오기섭은 북한에서 자신의 권력투쟁의 마지막 보루로서 직맹의 지지를 추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기섭이 가진 권력기반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조직하고 일해온 노동조합, 즉 직맹 조직이었을 것이다. 오기섭은 자신이 지도하였던 1929년의 유명한 원산 노동자파업을 잊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오기섭의 시대에 맞지 않는 직맹관에 대한 또 한가지 추측은 오기섭이 과거 10여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일제 사상경찰의 고문과 회유에 전향하지 않으려고만 마음을 다지면서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현재 보다는 과거의 생각과 이미지에 더 많이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다. 감옥 생활 때문에 오기섭은 사고와 전략에 있어서 신축성을 많이 잃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sup>59)</sup> 김일성이 만주에서 항일빨치산 투쟁시, 장기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목표인 ‘기본 강령’과 생존을 위해 날마다 취해야 했던 ‘행동 강령’을 구별하면서, 날마다 변화하는 환경과 생존 조건에 적응하면서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신축성을 키운 빨치산 경험과 오기섭의 수인(囚人)생활 경험과는 큰 차이가 있다.<sup>60)</sup> 오기섭은 해방 직후 객관적으로 보아 민족통일전선이 더 적합한 시기에 인민전선을 주장하고, 함경남도 등에 ‘노농(勞農) 소비에트’의 수립을 주장하는 등 좌경주의적 경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sup>61)</sup>

1947년 3월 15일에 열렸던 북로당 중앙위 제6차 확대회의에서 위에서는 논

59) 오기섭은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의 자아비판을 통해, 자신의 오류가 “10년 전 낡은 정세와 조건이 다른 시기의 인식을 고집한 데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136쪽.

60) 김일성장군 술, “민족대동단결에 대하여”, 13~14쪽; 조선산업노동조사소, 『울은 노선』, 40쪽.

61)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128~129쪽.



의하였던 직맹에 관한 오기섭의 신문 투고가 또 다시 문제가 되었다.<sup>62)</sup> 이번에는 김일성이 직접 직맹에 관한 오기섭의 이론을 공격하였다. 김일성의 비판은 이전에 주녕하가 비판하였던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sup>63)</sup> 김일성은 당과 직업동맹에서는 직맹사업에 대한 오기섭의 그릇된 이론을 비판하는 결정서를 채택하여 하급단체들에 내려보내도록 지시하였다.<sup>64)</sup>

그렇다면, 오기섭의 글이 출판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왜 주녕하가 1947년 2월에, 그리고 연달아 김일성이 3월에 오기섭의 직맹 이론을 공격하였을까? 필자는 주녕하와 김일성이 오기섭의 직맹에 관한 이론을 공격한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직맹문제는 당시의 상황에서 당·국가 건설에 필요한 노력(勞力) 자원을 최대껏 동원하여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혹시 직맹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답시고 당과 정부의 노력 추출(抽出) 계획에 반대하거나 지장을 준다면 큰일이었다.

이 직맹문제를 북한에서의 국가건설이라는 큰 맥락에서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을 잠깐 돌이켜 보자. 김일성은 1946년 3월부터 10월에 걸쳐 ‘민주개혁’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개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를 통해 ‘인민’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선거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민주개혁’을 통해 도입한 새로운 제도를 ‘법적으로 공고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건설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토대뿐만 아니라 튼튼한 ‘물적(物的) 토대’도 필요하였다. 이제 당·국가 건설에 필요한 자원, 특히 경제적인 자원을 최대껏 동원하고 추출하는 것이

62) 김일성이 “우리는 벌써 두 달 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오기섭의 ‘리론’을 뜨로쯔끼주의적 리론이라고 비판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오기섭은 1947년 1월 중순경에 직맹문제로 또 한번 공격을 당했던 모양이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3권, 186~187쪽.

63) 위의 책, 185~187쪽.

64) 위의 책, 188쪽.

필요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이 수립되고, 이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건국사상동원운동’이 1946년 12월초부터 시작되었다.<sup>65)</sup> 국가건설을 위한 이러한 중요한 과업을 앞에 두고 있는데, 만일 직맹이 노동자들을 잘못 선동하여 인민경제 계획숫자를 채워나가는 데 차질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터이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1946년 11월 28일에 북로당 제3차 중앙확대위원회가 열렸고, 이번 회의는 “선거승리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 생산부흥과 당내교양을 가강(加強)하자”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는 회의였다.<sup>66)</sup> 이 회의에서 특히 강조된 내용은 ‘생산부흥’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오기섭의 직맹에 대한 ‘잘못된’ 이론이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당연하였다. 1946년 12월에 들어 건국사상동원운동에 관련된 보도와 사설이 『로동신문』의 지면을 채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건국사상동원운동은 구체적으로 농업부문에서는 ‘김제원애국미헌납운동’으로,<sup>67)</sup> 그리고 산업부문에서는 ‘김회일(채탄돌격)운동’으로 나타났다.<sup>68)</sup>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산업국에서는 1946년 12월 1일부터 3일간 제3차 ‘각도 산업부장 및 국영기업장 책임자회의’를 개최하였다. 김두봉이 대독한 훈시를 통해 김일성은 “건국사상을 고도로 발양하여 경제건설의 난관을 극복하라”고 지시하였다.<sup>69)</sup> 1946년 12월 4일자 『로동신문』의 사설은 “산업발전 문제에 대하여”였는데, 이는 산업발전 문제에 대한 사설로서는 처음이었다.<sup>70)</sup>

1947년 1월 24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부를 노동국으로 승격시

65) 김일성의 “건국사상동원운동 개요(提要)”를 참조할 것. 『로동신문』, 1946년 12월 6일, 7일, 8일.

66) 위의 신문, 1946년 11월 30일.

67) 위의 신문, 1946년 12월 15일.

68) 위의 신문, 1947년 1월 22일.

69) 위의 신문, 1946년 12월 5일.

70) 위의 신문, 1946년 12월 4일.

키고 오기섭을 국장으로 임명하였다.<sup>71)</sup> 1947년 1월 26일자 『로동신문』 사설은 “직업동맹의 사업을 강화하자”였는데, 직업동맹이 “노동자 및 사무원들의 조직체라는 것만 빙자하여 국영공장이나 사회단체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장의 지배인이나 그 단체의 지도자들과 대립적으로 나아가는 옳지 못한 경향조차 있다”고 경고하고 었다.<sup>72)</sup> 북조선직업총동맹 평안남도 연맹은 1월 31일자로 산하 각 공장과 직장에 면리(面里) 인민위원회 선거에 적극 참가하고 이 선거를 증산운동과 결부시켜 ‘강력한 증산운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다.<sup>73)</sup>

1947년 2월 9일에 개최되었던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에서 김일성은 ‘1947년 인민경제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의 당·국가의 ‘물질적인 기반’을 놓는 일이었다. 당시 북한은 자본과 기술이 모두 부족하였고, 무역부문의 역할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가건설자들은 우선적으로 노동자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노동 자원을 추출해 내는 일이 시급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일성은 노동에 관한 오기섭의 주장이 노동자들로부터의 노력을 추출해 내는 데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셈이다.

1947년 2월 12~13일에 개최된 ‘제3차 각도 노동부장·과장회의’에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노동국장 오기섭은 사업보고를 하였는데, ‘직업동맹은 노동행정에 절대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sup>74)</sup> 김일성은

---

71) 위의 신문, 1947년 1월 26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61호). 제14차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이미 1946년 9월 14일 노동법령을 올게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부를 설치하고 부장에 오기섭을 임명하였다. 오기섭이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의 비서 자리에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선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명백한 좌천이지만, 김창순은 선전부장에서 노동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또한 좌천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창순, 『북한 15년사』, 107~108쪽. 그러나 당시 인민노력동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불가피하게 ‘노동전문가’인 오기섭의 역할을 어느 정도 기대했을 가능성도 있다.

72) 위의 신문, 1947년 1월 26일.

73) 위의 신문, 1947년 2월 2일.

74) 위의 신문, 1947년 2월 16일.

1947년 5월 29일에 열렸던 북로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직맹의 기구를 개편하고 선거를 통하여 직맹의 간부의 구성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그는 직맹의 간부대열에서 농민과 지식인들을 축출하고 대신 노동자를 배치코자 하였다.<sup>75)</sup>

1948년 3월 27~30일에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가 개최되었다. 김일성은 어김없이 오기섭과 다른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김일성은 종파주의, 개인 영웅주의, 자유주의적 경향, 지방 할거주의, 정실주의 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비난하였다. 김일성은 오기섭과 다른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을 심지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생활 습성에 젖은 '우물 안의 개구리들'에 비유하였다.<sup>76)</sup>

오기섭과 다른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소련파인 한일무(韓一武)와 김열(金烈)이 담당하였다. 한일무는 오기섭, 정달헌(鄭達憲)(이상 북한 국내파), 최용달, 이강국(李康國)(남한 국내파)이 그들의 종파주의적 행위에 대해 자기비판을 하도록 요구하였다.<sup>77)</sup> 오기섭과 정달헌의 소위 종파주의, 좌경 및 우경주의적 경향, 영웅주의 등에 대한 가장 심한 공격은 소련파 공산주의자 김열로부터 나왔다.<sup>78)</sup>

오기섭은 다시 한번 복종하였다. 오기섭은 서울에 있는 공산당 중앙에 대한 자신의 지지와 같은 자신의 과오를 열거하고 그는 '정중지와蛙(井中之蛙: 우물 안의 개구리)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잘못 평가하였으며, 자신의 소부르주아 급진적 조급성과 분파사향의 잔재가 깨끗이 청소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자아비판하였다. 오기섭은 자신이 북부조선분공의 제4차 확대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사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받아들였으며,

75)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3권, 296~297쪽.

76)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25~73, 55쪽.

77) 위의 책, 85~86쪽.

78) 위의 책, 128~129쪽. 소련파인 박창욱도 오기섭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오기섭의 종파문제와 직맹문제에 대해 비난하였다. 위의 책, 112~113쪽.

그 때문에 4차 확대집행위원회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맹에 관해 과오를 저질렀다고 고백하였다.<sup>79)</sup>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공격을 당하자 과감하게 반격을 시도한 사람은 최용달이었다.<sup>80)</sup> 최용달은 남한 국내파 출신이었으나 1945년 11월에 이미 월북하여<sup>81)</sup> 5도행정국에서 사법국 부국장,<sup>82)</sup>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사법국 부국장,<sup>83)</sup> 국장, 그리고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사법국장, 그리고 북로당 제1차 중앙집열위원회 상무위원<sup>84)</sup>을 지낸 인물로서, 이러한 경력은 남한 국내파 출신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sup>85)</sup>

전혀 예기치 못한 최용달의 과감한 반격은 전당대회가 계획된 토론 스케줄을 변경해야 할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실세(實勢)인 허가이(許哥而)가 등단하여 오기섭, 최용달, 이순근(李舜根)(국내파), 장시우(張時雨)(국내파) 등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허가이는 그들은 아직도 비당적 행동과 옳지 못한 사상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였으며, 오기섭은 자아비판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려고 자기 위신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86)</sup> 주녕하가 공격에 가담하였다.<sup>87)</sup>

오기섭, 최용달 등이 당시의 두 명의 실세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자, 오

79) 위의 책, 134~138쪽.

80) 위의 책, 147~148쪽.

81) 최용달은 해방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치안부장, 9월에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 보안부장을 역임하였다. 『로동신문』, 1946년 10월 29일.

82) 『正路』, 1946년 1월 3일.

83) 『正路』, 1946년 2월 17일자.

84) 『로동신문』, 1946년 9월 1일.

85) 『로동신문』, 1946년 9월 19일. 최용달은 『로동신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글을 쓰고 있다. 『로동신문』, 1946년 9월 19일(연재물 시작), 9월 22일~10월 2일, 10월 2일(연재물 시작), 1947년 1월 5일, 9일, 2월 6일, 3월 30일, 4월 1일. 최용달은 1946년 9월 19일자 『로동신문』에 “조선의 해방과 인민위원회의 결성”이라는 글을 실고 있는데, 그는 이 글에서 김일성에 대해 ‘수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86)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144, 149~150쪽.

87) 위의 책, 156~157쪽.

기섭의 최측근 지지자 중의 하나인 정달헌은 무조건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그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였다.<sup>88)</sup> 또 다른 국내파 공산주의자인 장순명(張順明)도 김일성에게 무조건 복종하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종파주의적 경향은 “쉽게 청산되지 않으며, 아마 죽어야 청산될 것”이라고까지 자아비판을 하였다.<sup>89)</sup>

토론을 종결하면서 김일성은 특히 오기섭과 최용달을 사정없이 비판하였다. 예컨대, 김일성은 “작년[장난]을 많이 하였다”와 같은 매우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오기섭을 비난하였고, 최용달에 대해서는 “전연 계급적 각성이 없고 당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또한 친일파들과 가까운 표현을 많이 하였다”고 비난하였다.<sup>90)</sup> 당시의 상황에서 ‘친일파’를 들먹인다는 것은 앞으로 언젠가 닥쳐올 최용달의 정치적 숙청을 의미하였다.

왜 김일성은 제2차 전당대회에서 오기섭을 또 한번 죽이려고 하였을까? 물론 오기섭은 김일성에 도전하고 그에게 반대하면 어떤 값을 치르게 되는가를 교훈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시범 케이스였음에 틀림없다. 김일성이 오기섭과 정달헌을 공격할 때 그들이 새로 저지른 과오가 아닌, 이미 여러 번 과거에 공격한 과오를 또 다시 들추어내어 공격한 것 자체는 특별히 새삼스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의 공격은 왜 또 그렇게 무자비하였을까?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김일성 그룹이 최용달을 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공격하였으며, 왜 또 이강국이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또 김일성 그룹은 장시우, 이순근, 장순명과 같은 국내파 공산주의자들도 함께 공격하였을까? 남한에서 월북한 최용달이나 이강국이 공식적인 당 대회에서 이번처럼 자아비판하도록 공격당한 적은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88) 위의 책, 159~160쪽.

89) 위의 책, 169~170쪽.

90) 위의 책, 176~178쪽.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소련과 한일무가 이강국의 종파주의를 공격한 내용을 보면, 한일무의 공격의 목표는 결국 '서울', 즉 박헌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sup>91)</sup> 박헌영이 궁극적인 과녁이라는 것은 김일성 자신의 공격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김일성은 어떤 당기관들이 '홍원 사람'이나 '서울 사람'들만을 충원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함경남도 홍원은 오기섭과 정달헌의 고향이며, 서울 출신은 물론 박헌영 지지자, 특히 최용달과 이강국을 의미하였다. 김일성은 오기섭과 박헌영 지지자들을 "과거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홍원, 서울식으로 지방에 고립적으로 생기고" 또 "유아독존식으로 제 이론이 제일 좋고 제가 수령인 양하고 사업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김일성은 또한 "남조선에서 온 동무들은 남북로동당 간에 이간행동을 취하고 자기와 친한 사람들이 남조선에 있고 자기도 과거 콤포그룹이니까 한자리 있지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며, "지금 38선 때문에 당이 둘로 되었지만 북로당은 한 개의 당이며 북로당에서 쫓겨나간 자가 남조선에서 용납될 수는 절대 없다"고 경고하였다.<sup>92)</sup>

김일성이 의도적으로 오기섭을 박헌영에 연계시켜 양자를 함께 묶어 공격하였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김일성의 진정한 의도는 박헌영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앞으로 종파주의적 행동과 같은 짓을 하면 오기섭처럼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었는데, 오기섭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 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는 김일성이 박헌영 그룹에게 장차 어떠한 도전도 아예 생각지 못하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경고를 주는 장(場)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의 김일성의 행동의 특징은 '당근'과 '채찍'의 동시 사용이었다. 김일성은 그의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단죄하였으나, 동시에 그들에게 상징적인 혜택을 통한 관용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폭력을

91) 위의 책, 85~86쪽.

92) 위의 책, 57, 129, 176, 178쪽.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었다.<sup>93)</sup> 김일성은 오기섭에게 채찍을 가한 후, 이제 ‘누구나 한 번 잘못은 다 있는 것’이며 장차 ‘오기섭 동무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식으로 당근을 제공하였다. 그는 심지어 오기섭은 ‘과거 일제와 가장 열렬히 싸운 동무’라고 칭찬까지 하면서, ‘출당 당할 일까지 한 것’도 너그럽게 보여주어서 오기섭에게 ‘중한 책임’을 맡기고 있다고 당근을 제공하였다. 나중에 북로당 중앙위원회 선거를 할 때, 김일성은 비판의 목적은 “오기섭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를 더욱 격려하여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sup>94)</sup> 그리고 오기섭은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67명 중 42번째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재선되었다.<sup>95)</sup> 오기섭은 김일성의 고도의 계산된 관용의 쇼케이스였던 것이다.

왜 김일성은 희망이라고는 한치도 없는 오기섭에게 그렇게 잔인한 공격을 퍼부은 다음에 또 그렇게 관용을 베풀었을까? 김일성은 오기섭에 대한 공격을 이용하여 박헌영에게 예방적 경고를 하려는 그의 계산된 목표를 달성하고, 관용을 베풀어 보임으로써 오기섭과 그의 추종자들이 흑시라도 박헌영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계산은 1949년 6월 30일 북로당과 남조선로동당(이하 ‘남로당’으로 칭함)이 조선로동당으로 합당할 때 그가 오기섭과 박헌영 측근인 이주하(李舟河)에 대해 다시 한번 당근과 채찍 전술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하였다.<sup>96)</sup> 김일성은 이제 자신이 전(全)조선에서 단일 공산당을 조직하고 당내에서 ‘단일적 지도력’을 확립하게 되었지만,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흑시라도 자신의 권위에도

93) 이러한 전술에 대해서는 Youseff Cohen, *The Manipulation of Consent: The State and Working-Class Consciousness in Brazil*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9), p.77을 참조.

94)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178, 230쪽.

95) 특별히 오기섭에 대한 선거에서만 회의 대표들이 소란을 피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책, 234~235쪽 참조.

96)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5권, 136~137쪽.



전하고, 또 그들이 박헌영 편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III. 김일성 대 박헌영

새로운 당·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서울에 있는 박헌영의 생각과 이익은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점령군 당국의 생각 및 이익과 동일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박헌영의 운명은 미군정의 정책에 달려 있었고, 미국의 정책은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박헌영은 북한에 있는 소련점령군 당국과 김일성의 지시와 원조에 점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박헌영은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 재건에 바로 착수하고, 9월초에는 자신의 위임장을 휴대한 '전권위원'들을 황해도, 평안남도, 평양시 및 기타 군 등 북한지역에 파견하여 당을 조직, 정비하여 서울 중앙당 지도하의 통일적인 공산당의 재건을 추진하고 있었다. 레베제프에 의하면 비교적 규모가 큰 북한의 당위원회들에는 대부분 서울 중앙에서 대표가 파견되었다.<sup>97)</sup>

당시 박헌영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서 명목적인 권위는 있었지만,<sup>98)</sup>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북5도당대회에서 김일성이 당규약 제정, 당중 인쇄, 전조선당대회 소집 등을 거론함으로써 조선 공산주의 운

97)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22쪽.

98) 1945년 10월 13일 개최된 서북5도당대회는 "귀중한 지도자 박헌영 동무에게 건강 건투를 비는 축전을 보낼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正路』, 1945년 11월 1일. 그리고 1945년 12월 25~27일에 열린 '평남도당 제1차 대표대회'는 스탈린과 함께 박헌영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正路』, 1946년 1월 8일.

동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sup>99)</sup> 당규약은 당의 조직체계와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당원의 자격, 의무, 입당과정 등과 같은 당중에 관한 제반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한 김일성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sup>100)</sup> 이제 서울이 평양을 돕는 것이 아니라, 평양이 서울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박헌영이 활동해야 하는 구조적 상황조건이었다.

김일성은 서북5도당대회에서 당대회는 국제 형제당, 즉 무엇보다도 소련 공산당과 북한에 있는 소련점령군 당국의 지지를 받는 당대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달리 말해, 김일성은 북한에서 소련군이 조성해준 소위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해방된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 하나 포착해 가고 있었다.

당시 소련점령군 당국은 박헌영 등의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소련점령군 당국은 박헌영을 조선공산당의 중앙당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파벌’로서 인식하고 있었고, 박헌영의 활동이 많은 오류와 결함을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sup>101)</sup> 따라서 당시 북한에서 정치분야를 책임지고 있던 레베제프는 서울의 중앙당과 관계없이 북한에 당조직을 만들되, 나중에 남북 공산당 조직이 합치는 한이 있어도 우선 북한에 따로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02)</sup>

결국 박헌영은 1945년 10월 23일자로 서북5도당대회에서의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의 설립에 대한 결정을 승인하고, 11월에 들어서는 ‘중앙의 지도와 연락의 중계기관으로 또는 보다 더 정치 행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

99) 조선산업노동조합소, 『옳은 노선』, 45쪽.

100) 위의 책, 45~46쪽. 이는 서울에 있는 박헌영에 의해 서북5도당대회에 파견된 남한 대의원들도 모두 찬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01)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22~23쪽.

102) 위의 글, 24쪽.

하여 북부조선 각도 책임자와 열성자는 중앙지도하에서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을 조직하여 지도하도록 결정'하니, '북부조선 각도 당부에서는 북부조선분국의 지도와 지령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sup>103)</sup>

1945년 12월 27일에 발표된 모스크바 3상회의에 의해 조선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지만, 내심으로는 한반도에서 북한만을 차지하여 친소정부를 세우겠다는 소련의 정책이 구체화되자,<sup>104)</sup> 이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의 권력 구조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우선, 서울에 있는 조선공산당 중앙당과 진보주의적 정당들과 단체들은 소련의 지시를 따라야 하였다. '신탁통치가 김일성을 살리고 박헌영을 죽였다'는 세간의 유행어처럼, 신탁통치문제는 김일성과 박헌영의 권력 싸움에서 일대 분수령을 이루었다.<sup>105)</sup>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신탁통치문제는 박헌영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 조만식도 죽이고 말았다. 신탁통치문제는 당내·외에서 최대의 경쟁자들을 없애거나 무력화시키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김일성에게 제공하였던 셈이다.

박헌영은 1945년 12월 28일 신탁통치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알아보고, 행동 지침을 받기 위해 38선을 넘어 평양에 갔다가 1946년 1월 2일 서울에 돌아와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지지를 발표하였다.<sup>106)</sup> 김일성과의 회동에서 합의한 중요한 사항은 김일성이 남한에 있는 중앙당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양측간에 통신 채널을 확립한다는 것이었다.<sup>107)</sup> 박헌영이 재정적으로 김일성에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김일성의 승리와 박헌영

103) 『正路』, 1945년 11월 7일.

104) 이정식, "냉전의 전개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유영의 편 『수정주의와 한국 현대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67~102쪽;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26~35쪽; Erik Van Ree,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 (Oxford: Berg, 1989), pp.126~128, 138~139, 268, 274~275.

105)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쪽.

106) 위의 책, 186, 188~192쪽.

107) 위의 책, 203~204쪽.

의 패배를 예고하는 것이었고, 양측간의 통신 채널은 남한에서의 박헌영의 활동에 대한 김일성의 직접적인 개입을 보장해 줄 터이었다.

박헌영은 1946년 10월 6일 월북한 이후, 망명 상태에서 평양으로부터 남로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비록 김일성의 힘이 박헌영에 비해 압도적이었고 박헌영은 남로당을 운영하는데 김일성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두 지도자는 공식적으로는 각각 독립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쉬피코프는 북로당과 남로당이 ‘업무상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박헌영은 남로당과 북로당의 단일한 비합법적 중앙을 창설할 것을 제기하였고, 김일성도 양 노동당의 통합중앙위원회 창설에 동의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1947년 1월 4일에는 쉬피코프, 치스짜코프, 로마네희, 김일성의 4자회담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최고지도자의 선정 문제에 막혀 남북로동당 통합문제는 보류되었다.<sup>108)</sup>

박헌영의 월북 당시 북한에서 특히 국내파들에게는 박헌영의 명성과 위상이 생각보다 대단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증거는 김용범이 『로동신문』 1946년 11월 13일자에 쓴 “남조선 민주운동의 지도자 박헌영 선생”이라는 장문의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조선공산당 역사와 조선혁명운동 역사, 그리고 민족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역사가 ‘진정한 애국자 박헌영 선생’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박헌영의 일제시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를 찬양하면서, “조선인민은 그를 사랑하며 아낀다”고 적고 있다.<sup>109)</sup>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948년 3월 27~30일의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 때까지 해서는 북한공산당 내의 모든 경쟁세력들은 실질적으로 분쇄되었거나 무력화되었다. 따라서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 현재, 김일성에게 조

---

108) 전환수, “『쉬피코프 일기』가 말하는 북한정권의 성립과정”, 『역사비평』, 제30호(1995년 가을), 158~159쪽.

109) 『로동신문』, 1946년 11월 13일.

금이라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박헌영 그룹뿐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김일성이 이미 날개가 꺾인 지 오래된 북한의 국내파 공산주의자들과 남한출신 공산주의자들을 공격한 것은 실제로는 박헌영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였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 시점은 김일성 측이 고도의 계산 하에 전략적으로 결정한 시점이기도 하였다.

김일성으로서는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남한출신 공산주의자들이 개시할 지도 모르는 도전에 대비하여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당시 수많은 저명한 남한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이미 월북하였거나 1개월 내에 월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즉 1948년 4월에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참석차, 많은 남한 공산주의 지도자와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점점 심해지는 미군정의 탄압을 피해 월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sup>110)</sup>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는 긴장감이 팽팽한 분위기에서 개최되었고, 김일성은 장차 박헌영 그룹으로부터의 어떠한 도전에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방적 공격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김일성의 박헌영에 대한 공격은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이미 위에서 설명한 장시우, 장순명, 이순근에 대한 공격은 최용달과 이강국에 대한 공격이 ‘표적 공격’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장 공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헌영을 드러내 놓고 공격할 시기는 아직 아니었다. 상기 3인은 국내파이긴 하지만 최용달이나 이강국처럼 박헌영의 측근은 아니었다.<sup>111)</sup> 따라서 그들은 최용달과 이강국을

110) 김창순, 『북한 15년사』, 119쪽; 방인후, 『북한 ‘조선노동당’의 형성과 발전』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7), 135쪽; 고준석, 『해방 1945~1950: 공산주의운동사의 증언』 (서울: 도서출판 한겨레, 1989), 211~216쪽.

111) 이강국은 미군정의 체포령 때문에 1946년 9월 6일부터 내린 체포령을 피해 바로 월북하였다. 이강국은 1946년 9월 18일에 열린 북조선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위원회의 제6

공격하고 궁극적으로는 박헌영을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 공격의 미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장시우, 장순명, 이순근 3인 모두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 최종일 중앙위원회에 재선된 것을 보면,<sup>112)</sup> 이러한 해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물론 상기 3인의 북로당 중앙위원회의 재선은 장차 그들이 박헌영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려는 의도도 그 속에 숨어 있었다.

오기섭의 측근인 정달현과 박헌영의 측근인 최용달과 이강국의 경우는 장시우, 장순명, 이순근의 경우와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정달현은 함경남도 당위원장, 평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북로당 창립대회나 제2차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선출된 적이 없었다. 일찍이 1945년 11월에 월북하여 행정기관에서 고위직을 연이어 맡았던 최용달도 결코 북로당 중앙위원회에 선출된 적이 없었다. 남조선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사무국장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및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외무국장의 직을 맡았던 이강국도 마찬가지로 북로당 중앙위원회에 선출되어 본 적이 없었다.

1948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을 구성하였는데, 김일성은 수상이 되었고, 박헌영은 부수상겸 외무상으로 선출되었다. 최용달과 이강국은 박헌영의 강력한 후원이 있었는데도 새로 탄생한 내각에 입각하지 못하였다.<sup>113)</sup> 이유는 이들이 박헌영의 최측근들이었기 때문이었다.<sup>114)</sup>

---

차회의에서 “미군정의 반동정책에 관한 보고”를 통해 ‘남조선에 있어서의 명명한 민족 지도자 박헌영 선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로동신문』, 1946년 9월 20일. 그는 이어 미군정 반동정책반대 평양시 민중대회에서 한 “남조선 주둔 미군정 반동정책에 관한 보고”에서도 거의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다. 『로동신문』, 1946년 9월 24일. 이 두 가지 보고에서 이강국은 맨 나중의 구호에서 ‘조선인민의 지도자 김일성 위원장 만세!’와 ‘조선민족의 영웅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고는 있으나, 보고 본문에서 김일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은 주목할 만하다.

112)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231~236쪽.

113)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권 (서울: 중앙일보사, 1993), 401~402쪽.

1949년 6월 30일 북로당과 남로당은 공식적으로 합당하여 '조선로동당'을 창당하였다. 북로당과 남로당 중앙위원회 연합전원회의에서 내린 결론에서 김일성은 '사상 의지적 통일'을 강조하고 어떠한 '종파주의적' 행위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은 '단일한 정당'임을 선언하였다.<sup>115)</sup> 김일성은 이 합당대회에서도 당근과 채찍의 수법을 또 다시 사용하였다. 이번 대상은 오기섭과 이주하였다. 이주하는 유명한 박헌영 추종자였다.<sup>116)</sup>

1949년 7월 1일 현재, 조선로동당의 정치위원회와 조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북한 국내파 공산주의자는 단 한 명도 없다.<sup>117)</sup> 이는 남한 국내파들이 합당을 통해 북로당에 입당할 때까지 해서는 모든 북한 국내파는 이미 정치적 숙청을 당한 다음이었고, 따라서 남북 국내파 사이의 어떠한 연계도 불가능하도록 사전에 완벽히 격리시켜 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서 하나의 단일 당을 이루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떤 파벌정치가 당장 문제되지는 않았다. 김일성도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해서는 어떤 사람의 과거의 과오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가이가 공식적으로는 박헌영보다 당내 서열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출판물에 허가이의 연설이 박헌영의 연설보다 먼저 실려 있는 것을 보면,<sup>118)</sup> 바야흐로 시대는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의 것이 아니요, 만주 빨치산파와 소련파의 시대였던 것이다.

114) 이러한 소위 '종파주의적' 요소 외에도, 김일성은 처음부터 이들에게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정달현은 1945년 10월에 서북5도당대회에서 공공연히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창설을 강력히 반대하였고, 최용달과 이강국은 1945년 9월 서울에서 김일성과 소련이 탐탁찮게 여겼던 '조선인민공화국'을 창립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115)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5권, 132~136쪽.

116) 위의 책, 136~137쪽.

117) Dae-Sook Suh, *Korean Communism, 1945~1980: A Reference Guide to the Political System*, pp.321~322.

118) 『로동당중앙위원회 정기문헌집』 (평양: 로동당출판사, 1950); 『근로자』, 46호; 『로동신문』, 1949년 12월 20일, 23일, 24일.

## IV. 김일성 대 조만식

국가(정부)기구의 건설과 장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만식과 김일성과의 권력투쟁의 기간은 해방직후 초기 5~6개월간이었다. 평양은 전통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의 세력이 강한 곳이었다. 평양과 평안남도가 북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38도 이북에서 평양문제는 평남문제이며 평남문제 해결은 북부조선문제 해결'이라는 오기섭의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sup>119)</sup> 그런데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할 때, 평양은 소위 '조만식의 세상'이었다. 소련점령군 당국은 일단 조만식을 '영입'하는데 나름대로 성공하였고, 조만식과 소련민정청과의 관계는 상호간에 일단 '함께 일할 수 있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만식은 치스짜코프와의 첫 만남에서 "소련군은 해방군인가, 아니면 점령군인가"를 물었고, 치스짜코프는 "소련군이 온 목적은 조선해방"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sup>120)</sup> 조만식은 레베제프를 만나 '해방 직후 평양의 정치·경제·사회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본정치노선은 '민주주의'여야 하고 '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제도를 채택해야 하며, '자주독립국가'의 건설로써 피압박민족의 한(恨)을 풀어야 하며, '언론, 집회, 결사 자유의 보장'을 강조하였다고 한다.<sup>121)</sup>

소련은 당시 북한에 소비에트정권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반일적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의 광범한 동맹에 기초한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민족주의자들과의 세력 연합을 추구하였다. 소련은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합을 위해 조만식과 함께 일을 하면서

119) 『正路』, 1945년 12월 14일.

120)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9, 91쪽.

121) 위의 책, 59~61, 92쪽.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지만,<sup>122)</sup> 조만식의 명확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1945년 12월 25일 현재까지도 “조만식의 소련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sup>123)</sup>

조만식은 처음에 소련에 대해 일종의 희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조만식이 1945년 12월에 남한점령 미군사령관 하지에게 보낸 밀서를 보면, 조만식은 “북한에서 공산주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주민은 소련의 점령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언급한 후, “미군정이 남한에서 혁명을 부추기고 싶지 않다면,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오히려 하지장군에게 ‘경고’ 하고 있다.<sup>124)</sup> 조만식이 의미한 바는 “소련군정이 북한에서 나름대로의 적절한 개혁을 수행하여 북한주민들은 소련군의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만식은 아마도 북한에서의 소련군의 의도를 ‘정직’한 것으로 해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련군은 조선을 점령하여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선언한 터였다. 더구나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조선인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인민위원회와 같은 자치조직들을 부정반대하여,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조선인들의 자치조직들을 인정하였던 것인데, 이는 조만식으로 하여금 소련의 의도에 대해 조금은 희망적으로 생각하게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25)</sup> 소련점령군 당국이 당시 북한에서 내세웠던 ‘민족통일전선’과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은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조만식의 정치노선과 일치하고 있었다.

당시 북한에서 소련군만이 변화를 추구하는 유일한 세력은 아니었다. 조

---

122) 위의 책, 61쪽.

123)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33~34쪽.

124) State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5*, Vol.6(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1146.

125)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94쪽.

만식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당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sup>126)</sup> 사회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압력이 급증하고 있었다. 예컨대, 실업자들과 노동자들은 1945년 8월 29일 평양에서 집회를 갖고 8시간 노동제, 실업 보험, 언론·출판·결사의 절대적인 자유, 소년노동의 금지, 의료서비스의 국가운영, 18세 이상 남녀의 선거권과 같은 개혁적인 요구들을 내놓았다.<sup>127)</sup> 한마디로 당시의 상황은 소위 정치가라면 그 누구도 개혁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산당과 소련점령군 당국은 '우리는 조만식 영감을 다소간 생각이 있는 영감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건국사업에 협력을 요청했던 것'이고, 물론 조만식이 '계급적 본질로 보아서 때때로 동요하는 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공산당과 소련점령군 당국은 그가 '큰 방향에 배반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양보하기를 겁내지 않았고 오직 그가 대국(大局)에 눈을 떠서 반성함이 있기를 요망했던 것이며 노력했던 것'이고,<sup>128)</sup> 조만식은 "조선의 해방을 가져온 붉은 군대 및 소련 인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친선을 맹세한다"고 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sup>129)</sup> 이는 조만식이 신탁통치문제로 실각한 이후에 나온 표현들이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조만식과 소련점령군 당국간에는 서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관계였던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당시 조만식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각(신념가치 체계), 이익, 그리고 권력기반 및 자원, 그리고 전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조만식은 어떠한 사회·경제체제를 원하였는가? 조만식은, 간단히 말

126) 오영진, 『하나의 증언』 (부산: 국민사상 지도원, 1952), 114~115쪽; 조영암, 『고당 조만식』 (부산: 정치신문사, 1953), 50쪽;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95쪽.

127) 森田芳夫, 長田かな子 編, 『朝鮮戦争の記録: 資料篇 第三卷』 (東京: 巖南堂書店, 1964), p.55.

128) 『正路』, 1946년 3월 9일.

129) 『正路』, 1946년 3월 12일.

해, 자산계급에 기초한 기존의 자본주의체제를 제한된 개선과 개혁만을 한 채 존속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소작인과 지주간의 소출 분배 비율에 대해, 소작인들과 당시 공산당이 과도기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비율이라고 주장한 '3·7제'를 반대하고, 대신 지주들이 더 많은 소출을 받는 '4·6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30)</sup> 조만식이 주장한 '4·6제'는 '3·7제', 그리고 보다 급진적인 안(案)인 '2·8제' 혹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와는 큰 대조를 이루었다.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의 기관지인 『正路』 창간호는 조만식이 위원장으로 있는 평남도 인민정치위원회가 1945년 10월 23일에 발표한 “소작에 관한 규정 세칙”은 ‘종래 지주의 착취방법을 기술적으로 합리화시키는 반동적 규정’이라고 비난하는 기사를 실고 있다. 이 세칙은 ‘지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농민의 무지를 이용하여 타협적, 기술적으로 착취형태를 바꾸는 방법’이며 ‘철두철미 지주분위의 소작 조령(條令)이라는 것이다.<sup>131)</sup>

조만식이 처음부터 자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였다는 증거는 많다. 예컨대, 1945년 8월 26일 평남도 인민정치위원회를 조직하는 회의에서 조만식은 자본주의를 옹호하였고,<sup>132)</sup> 며칠 후인 8월 30일에 있었던 평남도 인민정치위원회 후원 소련군 환영대회에서도 자본주의를 옹호하였다.<sup>133)</sup> 조만식의 가장 확실한 권력기반은 평안도지방의 기독교들<sup>134)</sup> 외에 지주와 자

130) 『正路』, 1946년 3월 12일. 공산당이 '3·7제'를 지지하였음을 보기 위해서는 『正路』, 1945년 11월 1일, 1946년 1월 10일자를 참조 오영진, 『하나의 증언』, 122~123쪽.

131) 『正路』, 1945년 11월 1일, 1946년 1월 11일.

132) Headquarters, U. S. Military Forces in Korea(USAFIK), "G-2 Weekly Summary"(이하에 서는 'W/S'로 약칭), no.9, Incl., no.3, p.1.

133) *Ibid.*, p.2.

134) 해방 후에 북한공산당이 기독교도들에 대한 요구는 “기독교에 대한 일제언(一提言)”이라는 『正路』의 사실에 잘 나타나 있는데, 공산당은 기독교도들에 대한 첫번째 요구가 “외래세력과 혹은 민족파시스트 등에 이용되지 말고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가장 충실히 싸워온 소련과 친선하며 조선공산당과 우의적 관계를 가질 것”이었다. 종교가 “조선혁명과 건국을 위하여 인민의 자극제가 되지 못하고 부정적 마취적 독제(毒劑)가 된다 면 조선인민은 여기에 대한 해독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正路』,

본가 등의 자산계급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45년 11월 3일 조만식과 그의 추종자들은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조선민주당의 '선언'은 '확고한 민족적 자각과 열렬한 애국정신' 하에 사회 전체의 대동단결을 이루고, 중앙정부를 수립하되, '대중을 본위로 한 민주주의 정체로서의 자주독립국가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조선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수립에 있어서 '목적과 취지가 같은 단체'와는 협력을 명백히 하였다.<sup>135)</sup> 따라서 당시 소련점령군과 김일성 그룹이 공히 민족의 단결과 민족통일전선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은 소련점령군 및 김일성의 공산당과 협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하겠다.

조선민주당은 또한 6개 '강령'을 발표하였다. 강령은 민주공화국의 수립, 전 민족의 복리 증진, 민족문화의 양양, 사회 각계 '유지'(有志) 결합(연합), '전 민족의 통일', 소련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친선 도모 등을 포함하였다. 물론 여기서 '유지'는 자산계급을 의미하였다.<sup>136)</sup>

조선민주당은 12개 '정책'을 내세웠다.<sup>137)</sup> 조선민주당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조선민주당은 '자작농', '산업 자본' 및 '상업 자본'에 기반을 둔 '의회제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의 개혁은 소작제도의 개선에 국한되었지, 결코 소작제도의 폐지가 아니었다. 조선민주당은 노동개혁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에 대해 산업노동 분야에서 몇 가지 요구를 수용하였지만, 예컨대, 노사간의 화합으로 '중단 없는 생

---

1946년 1월 9일.

135) '선언' (조선민주당, 단기 4278년[1945년] 10월).

136) '강령' (조선민주당).

137) '정책' (조선민주당). 이들 12개 정책 중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들은 언론·출판·집회·결사·신앙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민족반역자로부터 위의 모든 자유와 공권의 박탈, 의회제도와 보통선거제, 교육과 보건의 기회 균등, 무역 및 상업의 발전 촉진, 소작제도의 개선, 자작농 창정(創定)의 강화, 농업기술 향상, 공평하고 간편한 세제, 노동운동의 정상적 발전, 노사간의 일치점을 찾아 생산에의 지장을 제거, 실업자 대책 수립, 공장법, 생업(生業)보험, 건강보험, 최저임금제의 제정 등이다.

산'을 강조한 것은 당시 민족경제의 회복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지만, 역시 공장주의 이익을 중시한 하나의 예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환원하면, 기존의 체제는 존속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개혁은 '부르주아민주주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sup>138)</sup>

요약하면, 조선민주당은 제한된 범위의 개혁을 통한 기존 체제의 존속을 주장하였고, 자산계급을 바탕으로 한 의회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선민주당은 사회 각계 '유지'들의 세력 연합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성향을 드러내었다. 조선민주당이 주장한 소작제도, 복지, 보험, 노동임금에 있어서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의 것이었지 혁명적인 성격의 것은 아니었다. 조선민주당의 선언, 강령, 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들은 '민족', '국민', '대중'이었지, '인민',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텔리'는 아니었다. 후자의 용어는 조선민주당 창당시 문건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조선민주당 규약은 '민족반역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만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sup>139)</sup> 이 규정은 '민족통일전선'에의 참여와 공산당과의 세력 연합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었다고 하겠다.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의 조선민주당에 대한 생각은 1949년 11월 7일에 성대하게 러시아 '10월 혁명' 기념식과 행진을 한 후, 『正路』에 실린 평양시당원회의에서 한 "10월 혁명 기념 투쟁 총결산 보고"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보고자인 오기섭은 '부르주아지의 당이 있다면'이라는 표현으로써 조선민주당을 지칭하면서 조선민주당에게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첫째, 친소정책을 써야 할 것, 둘째, 조선공산당에 대해 친의(親誼) 정책을 쓸 것, 셋째, 친일적 반동분자를 철저히 숙청할 것, 넷째,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친일적 반동분자와 투쟁을 할 것이었다.<sup>140)</sup>

138) '정책' (조선민주당).

139) '조선민주당 규약' 제2장 제4조 '나'항.

140) 『正路』, 1945년 11월 21일. 1945년 12월 14일자도 참조.

공산당과 소련점령군 당국은 조선민주당의 강령을 당시의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하였고,<sup>141)</sup> 더구나 조만식을 이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의 정치노선을 더욱 진보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고, 조선민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알력은 민족통일전선 하의 공존의 틀 안에서 수용될 수 있었다. 소련군 점령 하에서 조만식의 자산계급에 기초한 부르주아 국가 수립의 주장은 대중에게 공산당이 아닌 대안(代案)정당을 제공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바로 이러한 성공은 궁극적으로는 조선민주당의 운명에 드리운 암운을 의미하였다.

조선민주당의 설립이 소련 측의 정치적 결정이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조만식은 1945년 11월 3일의 조선민주당 창립대회에서 “붉은 군대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회합하여 오랫동안 갈망해 온 정당을 조직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다. 김일성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조선민주당은 조직될 수 있었다. 남조선인민은 우리가 북조선에서 향유하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sup>142)</sup> 이는 조선민주당의 창당은 소련의 전략적인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조만식 측의 전략적인 행위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더구나 조선민주당이 소련점령군 당국과 김일성의 도움에 의해 북한의 공산당의 ‘우당(友黨)으로서 창당되었다는 것은 조선민주당 부당수이며 나중에 당수가 되는 최용건이 1945년 12월부터 1946년 1월까지 비밀리에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sup>143)</sup>

여기서 한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조만식이 창당대회를 2주일 정도 남긴

141) 『正路』, 1946년 3월 9일.

142)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25쪽. 조선민주당 창당과정에서 김일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W/S, no.9, Incl., no.3, p.5; Un Lim, *The Founding of a Dynasty in North Korea: An Authentic Biography of Kim Il-song* (Tokyo: Jiyu-sa, 1982), p.150을 참조

143) 『로동신문』, 1976년 9월 20일 (최용건의 사망을 부고하면서 게재한 ‘최용건 동지의 력력’ 및 ‘애도사’ 참조).

1945년 10월 20일경에야 조선민주당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sup>144)</sup> 조선민주당이 창당될 때까지 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북한에서 자신의 중앙당을 조직하였고, 김일성은 이미 1945년 10월 14일 조만식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평남도 인민정치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평양시민 운동장에서의 환영대회에서 ‘민족의 영웅’으로 치켜세워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소련점령군 당국이 조만식으로 하여금 당을 창당하도록 종용 내지 허용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산주의자들이 이미 자신들의 권력을 확고히 한 다음이었다.

조만식으로서는 당을 창당하여 추종자들을 집결시켜 동원함으로써 점차 감소하고 있던 자신의 힘을 되찾아 보려고 하였다. 조만식의 이러한 전략적인 계산은, 조선민주당이 창당된 후 많은 숫자의 당원을 획득한 것을 보면 근거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소련점령군 당국과 김일성으로 하여금 여태껏 드러나지 않았던 반공산주의자를 식별해 내는데 도움을 준 면도 있었다. 창당한 지 1개월도 못되어 민주당은 공산당보다도 더 많은 당원을 확보하였고,<sup>145)</sup> 3개월도 못되어 당원수는 수만 명으로 증가하였다.<sup>146)</sup> 오기섭은 민주당의 당세가 이렇게 확장된 이유를 북한에 “공산당과 민주당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부르주아 일부는 좌익진영에서 흡수되고 그 외의 분자는 조선민주당에 흡수되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47)</sup>

144) W/S, no.9, Incl., no.3, p.5; 홍성준 편, 『고당전』 (서울: 평남민보사, 1966), 213~214쪽;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1쪽.

145) 레베제프에 의하면, 1945년 12월 1일 현재, 북한의 공산당원은 총 4,000명 미만이었다. 데 비하여, 조선민주당원의 숫자는 5,406명이나 되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0쪽. 1945년 11월 15일에 치러진 면리 인민위원회 선거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점증하였다. Headquarters, U. S. Military Forces in Korea(USAFIK), “Intelligence Summary of Northern Korea”(이하에서는 ‘ISNK’로 약칭), no.2, p.2; ISNK, no.3, p.2.

146) 『正路』, 1946년 2월 13일. 1946년 2월 5일에 열린 조선민주당 열성자협의회회의의 ‘선언문’은 ‘현재 결당(結黨) 3개월 여에 이미 수만의 당원의 획득’하게 되었으며, 민주당의 당원 숫자를 ‘몇 만’이라고 함.

147) 『正路』, 1946년 1월 16일.

그러나 이는 조선민주당 창당 3개월도 못되어 당원이 '50만 명'이나 되었다는 주장<sup>148)</sup>과는 큰 거리가 있으며, 1946년 3월 7일에야 조선민주당 합경 남도지부가 결성되고,<sup>149)</sup> 4월 1일 제2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조직된 황해, 함남은 이를 강화하고 현재 임시 도당부로 있는 평남, 평북에 대하여는 굳은 조직으로 변경하며, 강원, 함북에는 새로운 조직을 가져오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sup>150)</sup> 또 4월 25일 평남도 위원회를 결성할 때, '당원 200여 명이 출석'한 것으로 보아,<sup>151)</sup> 조선민주당 중앙당이 생긴 지 3개월도 못되어 먼 단위까지 지방당을 창당하였다는 주장은 결코 정확한 주장은 아니다.

1945년 12월 하순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조만식은 이에 대해 "경성(京城)의 다른 정당들과 연락한 후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평남도 인민정치위원회 내에서 일하는 조선민주당 소속 직원들을 사직 소환시켰다.<sup>152)</sup> 박길용의 증언에 의하면 치스짜꼬프는 1945년 12월 30일 조만식에게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였는데, 그것도 '즉석에서 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는 치스짜꼬프는 조만식이 모스크바 결정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sup>153)</sup> 소련군점령 당국으로서, 그 동안 조만식과의 협조관계를 고려할 때, 조만식의 신탁통치문제에 대한 반대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을 지도 모른다.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조만식의 반대로 인하여 조선민주당과 평남도 인민정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sup>154)</sup> 1946년 1월 5일 개

148) 홍성준 편, 『고당전』, 220쪽; 한근조, 『고당 조만식』 (서울: 태극출판사, 1970), 392쪽.

149) 『正路』, 1946년 3월 16일.

150) 『正路』, 1946년 4월 10일.

151) 『正路』, 1946년 5월 7일.

152) 『正路』, 1946년 2월 7일.

153) 정성임, "소련의 대북한 점령정책에 대한 연구: 1945년 8월~1948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1999), 78쪽.



최된 평남도 인민정치위원회에서 조만식, 이윤영 등 다섯 명이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하여 위원장직과 위원직을 사임하였고, 후임 위원장으로는 홍기황이 피선되었다.<sup>155)</sup> 1월 10일 회의에서는 사임한 위원들 숫자만큼의 위원이 새로 선출되었다.<sup>156)</sup> 조만식에 대한 비난이 공산당과 민주당으로부터 거세게 쏟아져 나왔다.<sup>157)</sup> 조만식이 민주당에서 실각하자 공산당은 이제 조선민주당을 '우당'으로 인정하고 조선민주당의 강령을 원칙대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였다.<sup>158)</sup>

1946년 2월 5일, 진보적인 인사로 구성된 '조선민주당 열성자협의회'가 소집되어 '보수 독선적인 조만식 선생 일파를 민족통일의 파괴자요, 배반자요, 결과에 있어서는 조국건설의 방해자'로 규정하였다.<sup>159)</sup> 이어 2월 20일 내로 정식 당대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당을 이끌 임시중앙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강량욱이 임시당수로 선출되고,<sup>160)</sup> 나중에 최용건이 정식

154)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은 1946년 1월 2일 '조선에 관한 소·미·영 3국외상 모스크바회의 결정'에 대하여 공산당과 여러 사회단체들이 합동지지 발표를 하였을 때, 이를 지지하지 않았고, 1월 3일 발표된 5도행정국 국장회의에서 모스크바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위원장인 조만식은 이름을 넣지 않았다. 『正路』, 1946년 1월 3일.

155) 『正路』, 1946년 1월 12일.

156) 『正路』, 1946년 1월 12일.

157) 『正路』, 1946년 1월 16일(오기섭이 1946년 1월 2일 민청에서 한 연설), 1월 27일(민주당 평안남도 용강군당부의 13개년 민주당책임자 회의)(1946년 1월 26일에 평안남도 안주군 조선민주당 책임자), 1월 29일(조선공산당 부당수 최용건), 1월 31일(최용건); 3월 12일.

158) 『正路』, 1946년 1월 13일(사설).

159) 『正路』, 1946년 2월 7일.

160) 『正路』, 1946년 2월 13일. 『正路』 1946년 2월 7일자를 보면, 당수에는 홍기황, 부당수에는 최용건으로 되어 있으나, 2월 13일자에 실린 당혁신 열성자협의회에서의 '결정서'를 보면, 부당수는 최용건, 임시당수 겸 총무부장에 강량욱을 선출하고, 홍기황은 여러 '위원' 중의 하나로 선출되었다고 되어 있다. 집행부 개편으로는 집행위원장 최용건, 강량욱은 위원 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 1946년 2월 12일 7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 명의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성대회 주식단에서 '스탈린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강량욱이 조선민주당 임시당수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강량욱이 임시당수가 되었던 것이 사실로 보인다. 『正路』, 1946년 2월 7일, 13일, 20일.

당수가 되었다.<sup>161)</sup>

조선민주당은 4월 1일 제2차 당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번 과거 조만식의 잘못을 성토했고, 각도당부와 시군당부를 강화하고, 4월말까지 전 당원의 성분심사를 완료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당정치학교를 즉시 설치하고 당기관지를 발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sup>162)</sup>

최용건은 3월 30일, “가(假)애국자 민족반역자 조만식의 정체를 보라!”는 글을 『正路』에 기고하였고,<sup>163)</sup> 4월 10일자 『正路』는 조만식이 『每日新報』 1943년 11월 16일자에 “학도에게 고(告)한다”라는 글을 기고하여 학도지원 병을 모집하는데 도왔다고 폭로하는 기사를 『每日新報』 1943년 11월 16일자의 사진판을 동시에 실으면서 조만식을 “일본 파시스트 전쟁을 충실히 협력한 전쟁죄범으로 인민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공격하였다.<sup>164)</sup> 조선민주당은 4월 25일 평남도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이를 보도한 『正路』 1946년 5월 7일자는 “일반사회에서 뭇 모르는 사람은 조선민주당을 생각할 때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를 지지하지 않는 완고보수파, 반대파들만이 모인 당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더러 있을는지 모르나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조선민주당은 조만식과 그 지지자가 완전히 제거된 ‘민주주의 정당’이 되었음을 이야기해 준다.<sup>165)</sup>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큰 국제정치적 흐름에서 보면, 북한에서의 조만식의 몰락은 어찌 보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북한과 남한, 그리고 남북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이익 및 미·소간의 관계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은 1945년 9월 중

---

161) 3월 1일 평양에서의 3·1절 기념식에서 최용건이 민주당 당수로서 기념연설을 하는 것을 보면, 2월 13~28일 사이에 최용건이 정식으로 조선민주당 당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正路』, 1946년 3월 4일.

162) 『正路』, 1946년 4월 10일.

163) 『正路』, 1946년 3월 30일.

164) 『正路』, 1946년 4월 10일.

165) 『正路』, 1946년 5월 7일.

순부터 10월 초순까지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미·영·소 3국 외상회담에서 미·소간에 특히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한 후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해서, 대한반도 정책을 이제 북한만을 차지하여 그곳에 친소정권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sup>166)</sup> 그렇기 때문에, 소련으로서는 1946년에 들어서도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의 협조를 얻어 자신의 대북한정책을 실행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조만식 등이 소련의 정책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민족주의자들과 연합할 필요는 이제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조만식의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완고한 반대에 직면하여 소련점령군 당국과 김일성은 이제 조만식을 실각시킨 가운데 북한에서의 중앙정권기관으로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북한에서 '민족통일전선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였다.<sup>167)</sup>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으로 '민족통일전선'이 '완성'되었으므로, 소련점령군 당국과 김일성은 '민족통일전선'의 포함 대상이었던 '민족주의적 지주나 자본가'에 대한 예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 조치'를 통해 친일파 지주와 자본가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 지주와 자본가를 포함한 모든 지주와 자본가를 본격적으로 숙청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토지개혁이 바로 끝난 후인 4월 10일 열린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제6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당시의 조선 혁명의 단계를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로 재확인하고 당의 정치노선을 '반파쇼, 반봉건,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으로 규정하였다.<sup>168)</sup> 그런데 여기에서 '반파쇼, 반봉건,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이라는 표현은 말(言)만 이전의 민족통일전선과 동

166) 본 논문의 각주 101번을 참조.

167) 태성수 편, 『당문헌집: 당의 정치노선 급 당사업 총결과 결정』, 제1권, 19~20쪽.

168) 위의 책, 25~43쪽.

일한 민족통일전선이었지,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민족통일전선이었다. 즉 ‘반파쇼, 반봉건, 민주주의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실제에 있어서 ‘반지주, 반자본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946년 1월에 들어서부터는 조만식과 그의 추종자들은 점점 발붙일 곳이 없어졌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조만식은 지난 4개월 동안 소련점령군 당국과의 협력을 그렇게 중단하고 완고하게 신탁통치를 반대하였을까? 그가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여태껏처럼 그런 대로 협조관계를 유지했다라면, 그에겐 예우와 더불어 상당기간 동안 정치적 활동이 보장되었을 것이다. 조만식의 완고한 반대 입장은 본질적으로 그의 굽히지 않는 민족주의, 즉 통일된 조선독립 정부 수립 등에 대한 염원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만식은 북한만의 독자적인 정권기구인 북조선행정국을 만들려는 소련의 구상에 반대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69)</sup>

조만식은 또한 민족통일전선이라는 이름 하에 북한에서 공산당의 힘이 점점 커지고 공산주의 정책들이 점점 압도해 간 데에 대해 크게 걱정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 자산계급 출신과 기독교도들인 조만식 추종자들은 당시 공산주의 세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위에서 논의한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조만식의 행위와 전략을 설명할 때, 조만식의 생각, 이익, 그리고 그의 자원 및 권력기반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만식의 생각, 이익, 그리고 자원과 능력이 무엇이었던,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의 목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간에, 조만식의 소련정책에 대한 거부는 그의 정치적 생명을 요구하였다. 신탁통치문제를 둘러싼 공방과 그 결과는 국제정치에서 오는 충격이 당시

---

169) 예컨대, 조만식은 1945년 11월 15일 김일성과의 대담에서 이승만, 김구, 김일성 등을 포함하는 중앙정부의 수립에의 참여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신이 서울을 방문할 것을 협의하였으며, “12월 1일 이전에 중앙정부를 수립해서 외국군대의 철수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일성이 점령군의 철수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고 한다.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21쪽.

북한의 국가 건설자들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잘 나타내 준다. 조만식의 몰락은 행위자가 구조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반(反)구조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어떠한 값을 치르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조만식의 자율성은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전략적 구상의 한계 내에서만 주어졌던 것이다.

## V. 맺는 말

이상에서 필자는 북한의 당·국가 건설과정을 김일성 그룹이 경쟁그룹이나 경쟁과벌을 제거 내지 중립화시키면서 ‘단일적 지도력’을 확립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당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오기섭과의 투쟁, 박헌영과의 투쟁, 그리고 국가(정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조만식과의 투쟁을 살펴보았다. 이는 당·국가 건설자, 즉 ‘행위자’의 생각, 이익, 자원, 능력 및 전략, 당·국가 건설자가 그 안에서 활동하는 ‘구조’적 환경, 그리고 이 양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있어야만 북한의 당·국가 건설을 보다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우선, 김일성과 오기섭 양 지도자가 생각하는 통일전선의 종류가 서로 달랐다. 당시 북한의 상황에서 민족통일전선과 인민전선이라는 정치노선의 차이는 향후 권력투쟁과 연관하여 볼 때에 양 지도자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있는 사안이었다. 국유화된 산업분야에서의 직맹(노동조합)의 성격과 지위에 관한 양 지도자의 노선의 차이도 마찬가지였다. 김일성과 오기섭의 직맹에 관한 논쟁은 당·국가 건설을 위한 자원 추출의 필요성과 관련된

문제였고, 김일성은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인민경제계획의 완수를 위해서는 노동력을 동원·추출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한 반면, 오기섭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몰려 수세적인 입장에 처하였다.

김일성과 오기섭은 자신이 당·국가를 건설하고 권력을 장악하려 한 점에서 양 지도자의 이익은 동일하였지만, 여러 면에서 그들의 생각이 달랐고, 그들의 이익 추구 내용과 전략은 그들의 자원과 능력, 그리고 정치기회 구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오기섭은 차츰 축소되어 가고 있던 자신의 자원과 공간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방어적 처지였던 반면, 김일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의 확대를 위해 유리한 정치기회구조 하에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김일성 자신의 항일빨치산 활동의 명성, 항일빨치산 활동에서 취득한 생존의 전략적 능력, 그리고 소련점령군 당국의 후견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양 지도자의 생각, 이익, 자원과 능력,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당시 구조적 환경을 이루었던 소련점령군 당국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소련 점령 하에서 김일성은 오기섭에 비해서 여러 모로 유리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소련 연해주 88독립여단에서 생활하면서 소련군 장교들의 신임을 얻었고, 스탈린이 싫어하였던 코민테른에 관계한 적도 없었으며, 조선공산당에서 어떤 종파주의적 행동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련의 후견을 얻는 좋은 자원이 되었다. 오기섭은 이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김일성은 소련의 대북한정책의 시행에 가까이 협조하여 소련군의 신망과 지지를 획득하였다. 이에 비해 오기섭의 전략은 상대적으로 보다 방어적이었으며, 소련군과의 관계도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김일성은 ‘기본강령’과 ‘행동강령’을 구분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또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행동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전략적 신축성과 융통성을 발휘하였다. 김일성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공산주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해방 후 소련점령 하에서 그것이 너무 표출되어서 소련군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신경을 쓰기도 하였다. 즉 김일성은 생각과 전략에 있어서 오기섭에 비해 신축성과 융통성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소련군 점령이라는 환경 구조의 성격과 의미, 그리고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공산당 중앙당과 남로당을 이끌었던 박헌영의 경우는 오기섭의 경우와는 또 달랐다. 물론 서울에 있는 박헌영의 생각과 이익, 자원, 그리고 전략은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점령군 당국의 생각 및 이익, 자원, 전략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박헌영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도 역시 구조환경적 요인, 즉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있었던 미국과 소련의 정책이었다. 박헌영의 경우, 불행히도, 소련은 김일성을 후견하고 있었고, 미국은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었다. 과거의 그의 화려한 조선 공산주의 운동 경력과 지도력이 이제 와서 유용한 자원으로 충분히 변환되지 못한 조건 하에서 박헌영의 전략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헌영은 남한에 있을 때는 김일성에게 정치적·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북한에 망명한 이후에는 김일성에게, 다소간 과장하자면, 모든 것을 의존하여야만 하는 처지였다. 그러나 남한에 남로당의 독자적인 조직이 존재하였고 남한에 수많은 진보주의적 정당들과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으로서는 박헌영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일성은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박헌영의 측근인 최용달과 이강국에 대한 공격을 통해 박헌영 그룹에 대한 예방적 공격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민족주의자 조만식의 경우는 오기섭과 박헌영의 경우와는 또 달랐다. 조만식의 경우, 그의 생각과 이익, 자원과 능력, 그리고 전략은 소련군 점령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하에서는 기껏해야 일시적인 생명만을 갖는 것이었다. 조선 민족주의, 조선의 독립, 사회 엘리트의 세력연합, 그리고 제한된 개혁을 통한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이라는 조만식의 사상은 지주와 자본가와 같은 자산계급에 기초한 기존 자본주의체제를 지속시켜 자신의 권력기반을 유지하려는 그의 이익과 맥이 닿아 있었다.

조만식이 당시 북한에서 정치가들의 자율성의 범위를 규정하였던 구조환경의 요구, 즉 소련점령군 당국의 정책에 대해 처음에는 그런 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나중에 자신 생각과 이익을 내세우며 소련정책에 전면적으로 대항하자, 그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자원, 능력 및 전략은 구조가 투사하는 강력한 힘에 부딪쳐 순식간에 분쇄되어 버렸고, 그의 정치생명은 끝나고 말았다.

조만식의 경우는 행위자 수준에서의 변수, 즉 민족주의, 민족독립국가 수립,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 등과 같은 조만식의 생각과 이익이 구조적 수준에서의 변수, 즉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과 경쟁하여 결국 행위자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역시 행위자와 구조라는 양 수준에서의 변수들과 그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북한의 당·국가 건설을 분석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고준석, 『해방 1945~1950: 공산주의운동사의 증언』 (서울: 도서출판 한겨



- 래, 1989).
- 『근로자』, 46호
- 기광서, “1940년대 전반 소련군 88독립보병여단 내 김일성 그룹의 동향”, 『역사와 현실』, 제28호(1998년 6월).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1980).
- 김일성장군 숭, “민족대동단결에 대하여”, 1945년 10월.
- 김준엽 외 편, 『북한 연구 자료집』, 제1권 (서울: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9).
- 김창순, 『북한 15년사』 (서울: 지문각, 1961).
- \_\_\_\_\_, 『역사의 증인』 (서울: 한국 아세아 반공연맹, 1956).
- 『로동신문』, 1946년 9월 1일~1947년 4월 30일, 1976년 9월 20일.
- 방인후, 『북한 '조선로동당'의 형성과 발전』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7).
- 백학순, “국가형성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 (성남: 세종연구소, 1999).
- \_\_\_\_\_, “북한의 국가형성에 있어서 김일성의 자율성 문제”, 『한국정치학 회보』, 28집 2호(1994).
-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평양, 1946).
- \_\_\_\_\_,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 (평양, 1948).
- 오영진, 『하나의 증언』 (부산: 국민사상 지도원, 1952).
- 유영익 편,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정식, “냉전의 전개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유영익 편,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9집(1995).
- \_\_\_\_\_, “「쉬띠코프 일기」가 말하는 북한정권의 성립과정”, 『역사비평』, 제

30호(1995년 가을).

『正路』, 1945년 11월 1일 (창간호)~1946년 5월 17일.

정성임, “소련의 대북한 점령정책에 대한 연구: 1945년 8월~1948년” (이화  
여자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1999).

조영암, 『고당 조만식』 (부산: 정치신문사, 1953).

조선민주당, ‘선언’, ‘강령’, ‘정책’, ‘조선민주당 규약’ (평양: 단기 4278년  
[1945년] 10월).

조선산업노동동조사소, 『웁은 노선』 (서울: 1945년 11월 24일) (東京: 민중신  
문사 출판부, 1946년 6월 20일)(轉刊).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하권 (서울:  
중앙일보사, 1992, 1993).

태성수 편, 『당문헌집: 당의 정치노선 급 당사업 총결과 결정』, 제1권 (평  
양: 정로사 출판부, 1946).

한근조, 『고당 조만식』 (서울: 태극출판사, 1970).

한재덕, 『김일성장군 개선기』 (평양: 민주조선사, 1948).

홍성준 편, 『고당전』 (서울: 평남민보사, 1966).

Brockett, Charles D., “The 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ies and Peasant  
Mobilization in Central America”, *Comparative Politics* vol.23, no.3  
(Apr. 1991).

Cohen, Yousseff, *The Manipulation of Consent: The State and Working-Class  
Consciousness in Brazil*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9).

Dimitroff, Georgi, *The United Front: The Struggle Against Fascism and War*  
(San Francisco: Proletarian Publishers, 1975).

Gregor, Richard, ed., *Resolutions and Decision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The Early Soviet Period, 1917~1929*, vol.2(Toront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4).
- Headquarters, U. S. Military Forces in Korea(USAFIK), "G-2 Weekly Summary", no.9.
- \_\_\_\_\_, "Intelligence Summary of Northern Korea", no.2, 3.
- Lee, Chong-Sik, *Korean Workers' Party: A Short Histor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 Lim, Un, *The Founding of a Dynasty in North Korea: An Authentic Biography of Kim Il-song* (Tokyo: Jiyu-sa, 1982).
- Nove, Alec, *An Economic History of the U. S. S. R*, 2d ed. (London: Penguin Books, 1989).
- Paik, Hak Soon,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 Scalapino, Robert A &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Schapiro, Leonard,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2d ed. (New York: Vintage Books, 1971).
- State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5*, vol.6(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 Suh, Dae-Sook,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 \_\_\_\_\_, *Korean Communism 1945~1980: A Reference Guide to the Political System*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1).
- \_\_\_\_\_,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Tilly, Charles,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_\_\_\_\_,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 Organized Crime", In  
*Bringing the State Back In*, eds.,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meyer, & Theda Skocpo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Van Ree, Erik,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  
(Oxford: Berg, 1989).

森田芳夫, 長田かな子 編, 『朝鮮戦争の記録: 資料篇 第三卷』(東京: 巖南  
堂書店, 1964).

(Abstract)

## The Party, the State, and the Rivals in Early North Korea

Paik Hak Soon (The Sejong Institute, Political Science)

The most critical period in making a party-state in North Korea was the first six months between mid-August 1945 and early February 1946. During this time, the Soviet Union supervised the entire process of creating the North Korean party and state formation and gave the Kim Il Sung group critical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unitary leadership, that is, domination over, removal of, or neutralization of rival party-state makers constituted the essential part of the process of forming the party-state in North Korea.

The story of Kim Il Sung's success in forming the party-state in North Korea was due to the following: (1) the intra-party power struggle between the Soviet-backed Kim Il Sung group and the domestic Communists, first the North Korean Communists represented by O Ki-sop and, later, the South Korean Communists by Pak Hon-yong; and (2) the power struggle between the Kim Il Sung group and the North Korean Nationalists with Cho Man-sik

at the helm. Kim won a double victory in the power struggle, first with the rival domestic faction Communists in the party, and then with the Nationalists in the government.

Analysis of the interactions of Kim Il Sung's power struggles as well as agent and structure level variables is important in explaining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From this complex process of power struggle, Kim turned out to be the victor and succeeded in establishing a unitary leadership in North Korea.

Key Words: Party-State Formation, Actor-Structure Relationship, Kim Il Sung, O Ki Sop, Pak Hon Yong, Cho Man Sik.